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조주현(국립목포대)

본 논문은 통일이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세계시민이자 국가시민으로서 분단 극복과 남북 사회통합은 어떤 방향과 과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세계화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 후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현황을 살펴봅니다. 그러한 연후에 분단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교육과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결점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에 기여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을 토론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게 읽어보면서 느낀 소감은 우선 본 논문의 저자인 이인정 교수님이 그간 북한통일 관련 연구와 교육의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깊이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한 편의 교과서 글을 읽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폭넓고 타당한 내용을 치우침 없는 견해와 탄탄한 체계를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경륜과 고견에 경의를 표하면서 연구의 완성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사이의 관계적 측면입니다. 최근 우리 도덕윤리과 학계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세계 평화 또는 동북아 평화의 틀 안에서 파악하거나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통일의 국제적 성격이나 평화라는 도덕적 가치를 생각해보면 그러한 접근이 우리 교과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은 아니나 혹시 생각지 못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아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면 기우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우리 도덕윤리과가 통일교육의 핵심교과로 자리매김해왔는데 그러한 정체성이나 내러티브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통일이라는 주제를 자칫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가 진로선택과목으로 신설한 ‘국제관계의 이해’나 역사과의 내용으로 편입되거나 우리 교과의 평화라는 주제의 하위 영역으로 축소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내용 체 계	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삭제와 통합의 필요성 :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윤리의식’은 고등학교 ‘평화와 공존의 윤리’ 처럼 보편적 가치 규범을 지향하는 단원명으로 수정되거나 삭제 혹은 다른 주제와 통합되어야 함.
	제안 내용 및 사유	<p>☞ 대한민국 역사에서 통일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사의 내용 영역으로 다루어지는데 굳이 남북한 통일에 대한 내용을 도덕 교과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음. 이는 도덕교과의 탄생과 관련있으나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 도덕과 고유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북한 사회를 이해’ 하는 것과 도덕성의 함양과의 연계성은 희박함.</p>

※ 쟁점 및 소수 의견

- 북한 및 통일 관련 단원의 성취 기준 삭제(축소, 평화적 갈등해결로 통합)

아울러 이러한 접근은 다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대 통일원칙과도 충돌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세계 시민성이 최소한 국가 시민성보다 동등한 지위를 갖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된다면 통일의 3원칙 중 자주나 민주는 세계 시민적 성격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시민주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목 표	제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과 교육의 목표는 보편적 가치 규범을 지향해야 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함양하는 교과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	----------------------------------------------------------------------------------------------------------------------

제안 내용 및 사유	☞ 교과 목표가 ‘21세기 한국인으로서---’ 로 한정될 경우 도덕교육이 국가주도적 정신교육 내지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오해되거나 왜곡될 수 있음
-----------------------	----------------------------------------------------------------------------------

같은 맥락에서 통일이라는 주제는 갈등 극복이나 정의, 복지와 같은 민주 시민(또는 국가 시민) 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화나 해외원조 같은 세계 시민 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본 논문의 저자는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어느 하나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위의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 시민성의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1은 민주시민성의 개념을 설명할 때 덕목의 수준까지 요구하는 내용이며, 2는 세계시민교육의 사례로 유네스코를 드는 내용인데 유네스코는 세계 시민성의 수준을 덕목이 아닌 역량 정도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은 저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시민(민주시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입장은 기존의 국가 시민 즉 민주 시민성에서 언급한 덕목의 수준까지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시민교육의 사례인 유네스코처럼 역량의 정도인지 아니면 둘의 조화? 내지 혼합을 제시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시민성(citizenship)이란 특정 국가와 같은 어떤 정치공동체에 속한 시민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한 시민성에는 지위나 권리, 의무 뿐 아니라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 의지도 포함된다. 시민이 지녀야 하는 ‘시민성’을 덕목의 차원에서 설명하면 사회적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덕목이며, 타인과 함께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덕목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성’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들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믿고, 타인과 함께 시민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태도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주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타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시민성은 시민이 지녀야 할 정신이자 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의미한다. 시민성이 내포하는 시민으로서의 미덕들로는 자유, 평등, 권리, 책임, 의무, 정의, 봉사, 상생, 헌신, 희생, 배려, 소통, 나눔, 타협, 공존, 존중, 참여 등의 가치를 들 수 있다.

2. 세계시민교육은 유네스코의 구상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간 교육, 국제이해교육과 함께 평화교육, 인권교육까지 모두 포괄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 가운데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시민으로서의 핵심 역량은 첫째로 세계의 문제들과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 인간 존중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둘째로 문제의 서로 다른 차원, 양상, 측면을 인지하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포함해, 비판적, 체계적,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인지적 능력, 셋째로 공감, 갈등 해결 같은 사회적 능력과 서로 다른 배경, 출신, 문화,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과 소질을 포함한 비인지적 능력, 넷째로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 능력 등이 있다.

3. 분단 한반도 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 시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가져야 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가? 첫째,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은 국가나 지역을 넘어 지구촌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사고와 인식을 보다 넓혀, 지구라는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현대 사회가 복잡화되고, 특히 세계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중첩적인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분단 한반도와 세계 모든 구성원들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한민족을 넘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때, 아시아적 세계시민으로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도덕윤리과에서의 통일교육의 위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북한 통일 관련 단원이 부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도덕에서는 기존 북한이해 부분을 줄여서 통일 단원으로 합친다거나 모든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생활과 윤리에서만 기존의 양으로 다루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덕윤리과 현장의 목소리는 두 가지 딜레마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과거 국가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바 있는 북한통일

관련 단원은 이제 도덕과에서 축소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러면 안되고 도덕윤리과는 통일교육의 핵심교과로 통일내용을 축소시키면 교과로서의 위상이 축소된다는 반론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논문의 저자께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